

땅끝마을 아이들이 날린 청량한 스매싱...안방극장 통했다

SBS 월화극 '라켓소년단' 초반 시청률 5%대 선전
긴장감과 유쾌·훈훈함에 "새롭다" "신선하다" 호평
어린 배우·중견 배우 어우러져 가족 단위 시청 유도

땅끝마을 아이들이 날린 순수한 스매싱이 안방극장에 통했다. '라켓소년단'은 역사 왜곡 논란 등으로 일찍 종영된 '조선구마사' 이후 2개월 만에 방송된 SBS 월화극이지만, 전작 논란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청량한 분위기로 호평받고 있다. 방영 초반이지만 프로야구 구단 프런트를 소재로 해 대중성과 완성도를 모두 인정받았던 '스토브리그'에 이어 또 하나의 '웰메이드 스포츠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모은다. 주인공 해강(탕준상 분)은 보증을 잘못 섰다가 서울 거리에 나왔게 생긴 아버지 현중(김상경)을 따라 땅끝마을을 해남으로 내려왔다. 해강의 꿈은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는 야구이지만, 등 떠밀려 시골에 내려온 그에게 주어진 건 배드민턴 채 한 자루였다. 그는 '하얀 늑대' (배 감독, 신정근)가 코치로 있던 시절의 영광은 바랜 지 오래인 해남서중의 또래들과 즐지에 전국체전에 도전하게 된다. 도시 소년이 정정 자연으로 내려와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콘셉트는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성장 만화를 보는 듯 전형적이다. 하지만 잘 짜인 스토리 구성과

스포츠 소재 드라마가 주는 몰입감과 긴장감, 설 새 없이 웃게 되는 코믹한 장면들이 한계를 깔끔하게 보완한다. 캐릭터들은 모두 생동감이 넘치고, 이를 소화하는 배우들의 매력은 무지갯빛만큼이나 다채롭다. '사랑의 불시착'부터 '무브 투 헤븐', 그리고 '라켓소년단'까지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탕준상은 철이 없는 듯, 그러면서 속 깊은 듯 통통 튀는 요즘 10대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해강의 부모를 연기 중인 김상경과 오나라는 작품에서도 부부 관계인 것이 작은 반전으로 활용됐을 만큼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던 조합이었지만, 진짜 현실 부부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며 작품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각기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두 사람이 자녀인 해강과 해인,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임이 드러날 때 주는 감동도 그만큼 크다. 해남서중 친구들, '비주얼' 방윤덕 역의 손상연과 섬세한 나우찬 역의 최현욱, 팀의 마스코트 이음태 역의 김강준 조합도 자연스럽다. 따로인 듯 또 함께, 시나브로 '한 팀'이 되는 과정이 유쾌하고 즐겁게 그려져 계속 지켜보고 싶게 만든다. 또 탕준상



과 청소년 국가대표인 한세운 역의 이재인의 풋풋한 로맨스 호흡 역시 기대 이상이다. 마을 사람들의 역할도 감소 그 이상이다. 선택적 청각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신철진)와 통명스러운 척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스러운 오매할머니(차미경) 부부는 '전원일기'를 보는 듯 정겹다. 또 땅끝마을로 밀려 나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정민성·박효주 분)가 마을 사람들의 묘한 관심으로 치

유되는 과정은 '동백꽃 필 무렵'을 연상케도 한다. 정보훈 작가는 교도소 내 인간 군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참여했던 만큼 이 작품에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덕분에 '라켓소년단'은 호화 캐스팅이나 시끌벅적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초반 시청률 5%대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구매력 있는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막장극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진입을 노리고 제작된 장르극의 홍수 속에서 '라켓소년단'은 굳이 흠을 찾아내고 싶지 않은, 귀중한 작품이다. 어린 배우들과 중견 배우들이 잘 어우러져 가족 단위로 시청하기에 좋은 것도 지상파 작품으로서 큰 장점이다. 제작사 측은 최근 "재밌다", "새롭다", "신선하다"는 호평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유쾌한 상상력과 기발한 재치를 발휘해 시청자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년 함께한 '런닝맨' 이광수 하차에 멤버들 눈물

원년멤버 '배신의 아이콘' 캐릭터
'아시아 프린스' 별칭 얻기도

배우 이광수(사진)가 SBS TV 예능 '런닝맨'을 11년 만에 떠나자 멤버들이 눈물바다가 됐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방송한 '런닝맨'의 '굿바이, 나의 특별한 형제' 특집 시청률은 4.5%~6.0%를 기록했다. 시청률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런닝맨'을 평생 아껴온 시청자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이광수는 "평상시 녹화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런닝맨' 첫 녹화 장소였던 SBS 옥상정원, 멤버들이 좋아할 만한 LP바 등을 촬영 장소로 골라 직접 마지막 녹화를 기획했다. 제작진은 전직 판사를 초빙해 그동안 '런닝맨'에서 '배신의 아이콘'이 된 이광수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는 재물 손괴 58건, 폭행이 353건, 공연음란죄는 37건, 사기는 1812건, 기타 경범죄까지 다 해 총 3353건의 범죄를 저지른 이광수를 향해 "죄질이 나쁘다. 징역 1050년에 처한다"고 판결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이광수의 하차가 크게 아쉬운 듯 "다시 생각해봐라.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고 하차 반복



해라.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멤버들은 눈물을 보였다. 제작진으로부터 황금 이음표 등을 선물 받은 이광수도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의 가족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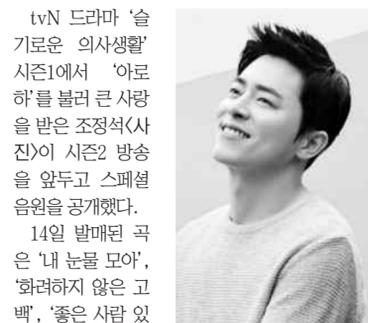
"11년 동안 잘은 못했지만 매우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런닝맨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광수는 '런닝맨'의 원년 멤버로서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특별한 캐릭터로 자리 잡아 사랑받았다. 특히 '런닝맨'이 중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도 이광수의 독특한 캐릭터 덕분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로 힘입어 이광수는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발목을 다친 후 본업인 연기와 예능 활동을 병행하기에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하차하게 됐다. 이광수는 이날 이른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 같은 멤버들, 스태프, 늘 응원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제가 받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난 11년 동안 매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며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전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런닝맨'과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5.7%~8.1%, MBC TV '안 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은 2.3%~3.0%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천안함 함장의 그날 이야기
MBC 'PD수첩' 오늘밤 방송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씨의 이야기를 방송한다고 14일 밝혔다. 'PD수첩'은 11년 만에 천안함 생존자들이 털어놓은 증언과 함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와 비망록을 최근 3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최 함장을 통해 공개한다. 'PD수첩'에 따르면, 최 함장은 사건 당시 상부에 '어뢰 피격'을 보고하고 대응 공격을 요청했으나 보고체계 중간에서 해당 보고가 누락됐다. 이에 'PD수첩'은 어뢰 피격 보고가 어느 과정에서 사라진 것인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당시 정부의 결론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나온 것인지를 파헤친다. 또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천안함 침몰 이후 열린 한 회의의 내용도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15일 밤 10시 40분 방송. /연합뉴스

'아로하' 히트시킨 조정석
'슬기로운...' 스페셜곡 발매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에서 '아로하'를 불러 큰 사랑을 받은 조정석(사진)이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스페셜 음원을 공개했다. 14일 발매된 곡은 '내 눈물 모아', '화려하지 않은 고백',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극 중 '미도와 파라솔' 멤버들의 연주와 노래만으로 이뤄진 곡들이다. 특히 '내 눈물 모아'는 시청자의 음원 공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곡이다. 조정석은 "시즌2를 준비하면서 미도와 파라솔이 더 견고해지고 앙상블이 더욱 좋아졌다. 이번 스페셜 음원을 통해 시즌2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시금 시즌1의 감정을 불러왔으면 한다. 우리 드라마 첫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는 오는 17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